이안의 Media In Buddha ⑰ 영화 〈수라〉



▶한줄 요약
넓은 새만금 여러 갯벌 가운데 '수라 갯벌'이 있다. 하지만 그 갯벌은 새만금 공사로 물길을 끊어졌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직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다. 황윤 감독을 빼어난 비단처럼 곱고 아름다워 수라라고 불렸다는 갯벌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 〈수라〉를 제작했다.

물길 막혀도 그곳엔 숨탄것들이 있다

영화제에서 상 받으려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영화제에서는 찬사를 받지만 막상 대중과 만나기 어려운 영화들이 많다. 영화가 별로여서가 아니라 '영상 상품으로서의 가치' 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영화들. 그런 영화 가운데 〈수라〉도 있다.

〈수라〉를 만든 황윤 감독은 뭇 중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생명체들이 지르는 비명에 공명하고, 그 고통의 근원을 찾고, 찾아낸 근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카메라를 드는 수행자와도 같다. 그리고 〈수라〉를 극장에서 보자고, 그것도 서너 극장이 아니라 전국에 적어도 100개의 극장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고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

지금 한참 "〈수라〉 100개의 극장, 100명의 관객이 됩시다"라는 발원을 세우고 '관객이 보고 싶은 영화를, 관객의 힘으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극장에서 만나보자' 는 이 움직임은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영화 배급 환경에서 마치 영화 안 수라 갯벌의 모습과도 같다.

영화 〈수라〉는 감독 황윤 혼자만의 영화가 아니다. 갯벌의 매혹에 빠져 그곳의 생명들을 기록해 온 사람들, 새만금 공사로 물길이 막히고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생명체들이 깃들어 숨 쉬고 있는 지를 꾸준히 살펴온 사람들이 함께 만든 다큐멘터리다.

〈수라〉는 202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 이후, 환경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시네필들, 일반 관객들, 평단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작품이다. 그런데도 독립 다큐멘터리 극장 개봉이 여의치 않자 이례적으로 '관객이 여는 시사회' 가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시사회마다 참여했던 관객들이 100개의 극장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품은 작품이기도 하다.

학생 시절, 국어 시간에 말의 역사성을 배우는 단원이 있었다. 동물을 얕잡아 부르는 짐승이라는 말이 그냥 불교 신자를 뜻하는 말이려니 생각했던 단어인 '중생' 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뭔가 울컥했다. 종속과문강문계로 생명체를 나누면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 이라고 모든 진화의 제일 꼭대기에 올려놓는 과학 시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크고 넓은 생각의 바탕이 다른 놀라웠다.

사람 또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시대, 문화, 종교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생물학적으로 분류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존재' 란 뜻을 담고 있고, 사람이라는 우리말은 '삶' ,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또는 살아가는 존재란 뜻이다. 신분제가 있던 시대에 통치자인 군주 가문 말고 나머지는 성이 뭐든 피통치자인 '백성' 이었고, 왕 아래 신하인 사람은 다 '신민' 이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신자' 또는 '신도' 라고 하고, 신분제가 철폐된 이후 참정권이 있는 사람들은 '시민' 이라고 했고, 근대 이래 나라에서 신분을 인정받고 의무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 받는 사람은 국민이라고 한다.



영화 〈수라〉의 한 장면.

원래 자연인이라는 뜻이었다는 '인민' 이라는 말은 냉전 시대를 거치는 동안 정치 사회적 의미가 덧입혀져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르는 여러 말 가운데 아마도 가장 범주가 넓고 깊은 말은 바로 불교에서 자주 쓰는 '중생' 이라는 말일 것이다.

'중생(衆生)' 은 한자로는 무리 중(衆) 자에 살 생(生) 자를 합친 말이다. 그러니 사람 만이 아니라 부처의 구제 대상이 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나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윤회하는 존재' 를 뜻하는 중생은 인간을 비롯한 삼계육도(三界六道), 즉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를 오가는 지옥 중생 · 아귀 · 인간 · 아수라 · 천신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말에 녹아들면서 중생이 즘생이 되고, 즘생이 짐승이 되면서 처음에는 모든 생명체를 품는 말이었다가 이제는 사람 말고 나머지 동물을 뜻하는 말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말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를 배제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우쭐거림이 들어있는 말이다. 그런데 가만, 사람도 짐승인데, 왜 짐승이라고 하면 욕이 되지?

막연히 고리타분하고 권위적일 거라고 잘못 넘겨짚었던 불교를 중생이라는 말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자 새마을 운동이니 조국 근대화니 하는 선동 속에서 절이나 무당집이나 다르게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단청 울긋불긋한 것만 보이던 사찰 안에서 목어, 운판, 법고, 범종의 의미도 배우게 되었다.

새만금 공사로 물길 막힌 수라 갯벌
갯벌 속 살아가는 생명들 영상 담아
뭇 생명과 인연이 켜켜이 쌓인 다큐
평단, 관객들 모두에 호평 받은 수작

뭇 생명 안에서 불성을 보고 그 모든 생명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물' 이라니, 그냥 자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자대비하다고 할 밖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서양 과학적 사고방식은 사람이 잘 살려면 자연을 얼마든지 이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부추기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 사람이 번성하면 할수록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은 점점 더 파괴되었고, 오늘날 지구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면서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더 많은 개발이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한다는 정치와 경제의 선동은 멈출 줄 모르고,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는 인공적인 구조물들이 땅과 바다를 바꿔 내고 있다. 그 가운데 아마도 가장 섬뜩한 것이 새만금일 것이다.

그 넓은 새만금 여러 갯벌 가운데 '수라 갯벌' 이 있다. 물이 들 때는 바다였다가, 물이 날 때는 뻘이 되는 너르고 너른 터, 갯벌. 그 가운데도 빼어난 비단처럼 곱고 아름다워 수라라고 불렸다는 곳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 〈수라〉가 만들어졌다.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든다' 는 발상은 정말 무시무시한 폭력이었다. 그 바다가 삶의 터전이던 모든 존재를 다 묻어버리겠다는 그런 시도가 '경제발전' 이라는 정치적 구호 하나로 그냥 밀어붙여지는 것은 자연에 대한 테러였다.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던 갯벌은 쓸모없는 불모지가 아니라 수많은 갯것들이 깃들어 사는 생명의 보고였고, 그 갯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지역 사람들의 소중한 삶터였다. 그런데도 불도저를 앞세워 밀어붙여지고 메워졌다.

황윤 감독은 영화란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기에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믿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특히 황윤 감독은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 동물들의 목소리를 영화를 통해 세상에 들리도록 하는 작품을 이어왔다.

〈작별〉(2001년 제작, 2008년 개봉)에서는 동물을 좋아하는 봉사자가 동물원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해줄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생명체로서가 아니라 전시물로서 이용되는 동물들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건 사람들 때문에 근친 교배로 태어나 유전적 기형으로 전시조차 되지 못하고 평생 다른 생명과 교감도 할 수 없는 새끼 호랑이 크레인도 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황윤 감독은 크레인에게 약속했다고 한다. 너의 이야기를 영화로 담아 잘 전달하겠노라고.

〈어느날 그 길에서〉(2006년 제작, 2008년 개봉)는 '로드 킬' , 길에서 차에 치어 죽은 동물들을 카메라에 담는다. 찻길이 생기는 순간 토끼가 늘 풀 뜯던 길 건너 숲에 가려면, 목마른 고라니가 물 한 모금 마시러 옹달샘을 찾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는 동물들에게 황천길과도 같다. 야생동물 교통사고를 조사하게 된 청년들과 감독은 촬영을 위해, 차들이 질주하는 위험한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거기서 죽어간 동물들을 카메라에 담아 묻는다. 이런 길이 최선이냐고.

〈잡식가족의 딜레마〉(2014년 제작, 2015년 개봉)에서 감독은 야생 동물이나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이 아니라 우리 상에 오르는 동물들에게 눈길을 주게 된다.

황윤 감독은 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까지는 동물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편애였다고 고백한다. 늘 밥상에 오르는 동물인 돼지, 소, 닭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2010년 구제역으로 돼지들이 살처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먹는 동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돈가스 맛있게 먹고, 돼지를 고기로만 생각해 왔지 동물로서 여긴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실제 돼지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농장을 찾아가 돼지와 친구가 되면서 돼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동물인지를 알게 된 감독은 〈잡식가족의 딜레마〉라는 자기 가족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유를 갈망하며 새끼를 사랑하는 엄마돼지의 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동물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전령사로 살아온 황윤 감독은 2003년 수경 스님을 비롯해 가톨릭의 문규현 신부, 원불교의 김경일 교무, 개신교의 이희운 목사까지 4대 종단의 성직자들이 새만금 갯벌 보존을 호소하며 해창갯벌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할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구간에 참여했었다.

그런데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3년 후 시작됐던 다큐멘터리는 주인공이었던 지역 어민의 사고사로 중단되었으나 감독 가족이 군산으로 이사하면서 다시 새만금을 찾게 되었고, 감독은 카메라를 놓았고, 이미 갯벌은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수라갯벌에서 청년이 아버지가 되는 세월 동안 내내 그 생명들을 기록하던 사람들과 만나, 그 인연으로 〈수라〉를 만들게 된 것이니, 켜켜이 얽힌 인연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인연이 100개의 상영관에서 개봉되기를, 우리 사람도 뭇 중생 가운데 하나로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본 죄' 를 함께 지고, 그 업을 함께 풀기를 10년이나 물이 들지 않아도 바다를 기다리며 살아남은 흰발농게의 간절함을 담아 기원한다.

〈영화평론가〉



